

‘제2의 박찬호’ 꿈꾸는 박정우, 외야 ‘호시탐탐’



지난해 KIA 퓨처스리그 도루왕... 빠른 발·강한 어깨 공수 활용가치 높아
박찬호 특별과의 받으며 자신감 업... 시범경기서 눈도장 ‘준비는 끝났다’

‘박찬호 바라기’ 박정우(사진)가 외야의 ‘비밀 병기’로 기회를 노린다.

KIA 타이거즈는 올 시즌 두터워진 선수층을 앞세워 뜨거운 가을을 기대하고 있다. 곳곳에서 자리싸움이 벌어지면서 알아서 전력업그레이드 되고 있다.

외야도 역시 격전지로 좁힌다. 이곳에서 박정우가 조용히 존재감을 키워가고 있다.

박정우는 시범경기 4경기에서 5타석을 소화했다. 교체 멤버로 나서면서 많은 것을 보여주지 못했지만 5타석에 나와 2개의 안타를 기록했고, 볼넷도 하나 골라냈다. 도루와 타점도 만들었다.

파워가 강점으로 꼽히는 KIA 타선에서 박정우는 스피드와 맞춤형 공격으로 어필하고 있다.

올 시즌 KBO리그에 부는 변화의 바람 중 하나는 ‘뛰는 야구’다. 베이스가 확대되면서 주루 중요성이 더 커졌다.

여기에 KIA의 선 굵은 타선에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세밀함도 필요하다.

박정우는 지난해 퓨처스리그에서 32차례 베이스를 훔치면서 ‘도루왕’에 올랐다. 공격적인 주루로 상대를 흔들 수 있는 능력을 갖췄고, 어깨 하나만으로는 팀에서도 손에 꼽는 강건이다. 빠른 발을 가진 강건 외야수인 만큼 박정우는 공수에서 경기 후반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카드로 활용 가치가 높다.

코칭스태프도 이런 부분에서 박정우를 유심히 지켜보고 있다. 박정우는 박찬호를 열심히 눈에 담고 있다.

박정우는 박찬호와 실과 바늘이다. 박정우는 지난해 이어 이번 비시즌에도 박찬호와 열심히 몸을 만들었다. 지난 1월에는 박찬호와 함께 김선빈이 이끈 제주도 자체 캠프에 참가해 선배들에게 특별 과외도 받았다.

그가 박찬호를 유독 따르는 이유가 있다. 박찬호도 신인 시절 애초한 체력이 단점으로 꼽힌 선수였다. 하지만 지금은 웨이트를 바탕으로 힘을 키우면서 수비뿐만 아니라 타격에서도 확실히 자리를 잡았다.

‘제2의 박찬호’가 되고 싶은 마음, 박찬호도 자신을 닮은 후배를 혹독하게 몰아붙이면서 2024시즌을 준비했다.

박정우는 “찬호형이 제주도 캠프에서도 2~3시간씩 웨이트를 시켰다. 힘들기는 했지만 최상의 몸상태로 캠프를 치를 수 있었다”고 말했다.

호주 캔버라, 일본 오키나와로 이어진 캠프에서도 박찬호의 과외는 계속됐다. 웨이트 시간에는 물론 휴식시간 틈틈이 타격적인 부분도 챙겼다. 이는 박정우의 자신감으로 이어졌다.

박정우는 “보여줄 때가 왔다. 뛰는 것은 자신이다. 베이스가 확대되면서 확실히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계속 뛰어보라고 말씀하시는데 기회가 아직 많이 없었다. 남은 경기에서 기회가 되면 열심히 뛰겠다”며 “힘이 생기면서 때리는 게 달라졌다. 캠프에서 가장 좋은 페이스로 타격을 했다. 나는 외야를 안 넘겨도 된다. 내야수가 못 잡게 치는 데 집중했다. 연습하고 시합하는 게 다르지만 자신있게 공격적으로 치려고 한다. 내 존에 오면 공격적으로 치려고 한다. 시범경기니까 자신있게 하면서 결과를 봐야 한다”고 적극적인 타격을 예고했다.

수비 준비도 끝났다. KIA는 박정우의 강한 어깨를 만능 활용하기 위해 우익수 자리에 집중하도록 했다. 이제 공만 오면 된다.

박정우는 “공이 많이 안 와서 아쉽지만 송구 정도 생각하면서 수비 나가고 있다. 2점 줄 것 1점만 주도록 할 생각이다. 준비는 다 끝났다. 시범경기에서 다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볼 판정 두고 싸울 일 없겠네... ‘로봇 심판’ 성공률 99.9%

프로야구 시범경기 자동 투구판정 시스템 점진 순조

올해 프로야구 정규리그에 정식으로 도입되는 자동 투구판정 시스템(ABS)이 시범경기에서 순조롭게 뿌리를 내리고 있다.

KBO 사무국은 지난 9일 개막해 12일까지 진행된 시범 19경기의 ABS 투구 추적 성공률이 99.9%에 달했다고 13일 소개했다.

ABS는 트레이킹 시스템을 활용해 투구의 위치값을 추적한 뒤 컴퓨터가 스트라이크 또는 볼을 판별하는 시스템이다.

ABS 프로그램은 각 경기장에 설치한 카메라로

투수가 던진 공의 궤적을 파악한 뒤 스트라이크 혹은 볼 판정 내용을 이어폰을 낀 심판에게 음성 신호로 전달한다.

투구 추적 성공률이 100%에 근접했다는 얘기는 경기장에 설치된 카메라가 투구 궤적을 거의 놓치지 않았다는 뜻이다.

KBO 사무국은 중계 와이어 카메라가 이동 중 추적 범위를 침범했을 때와 같은 극히 일부 사례에서만 투구 추적이 실패했다고 설명했다.

이런 경우에 주심은 ABS 프로그램 담당자에게

문의하거나 스스로 스트라이크와 볼을 판정할 수 있다.

KBO 사무국은 시즌 중 급격한 날씨 변화, 이물질 난입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100% 트레이킹 추적 성공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추적 실패 시 대응 매뉴얼을 더욱 철저히 준비하고 심판과 ABS 운영요원의 교육을 지속해 경기 진행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KBO 사무7국은 공정하고 일관된 스트라이크와 볼 판정을 유도하고자 올해 ‘로봇 심판’으로 불리는 ABS를 전격 시행한다.

또 투수의 투구 간격을 엄밀하게 계속하는 피치

클록의 시범 운영으로 평균 경기 시간이 지난해보다 23분 단축된 2시간 35분으로 집계됐다고 KBO 사무국은 전했다.

피치 클록에 따라 투수는 주자가 없을 때 18초, 주자가 있을 때 23초 이내에 공을 던져야 한다. 타자는 8초가 적절 무렵에 타격 준비를 완료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투수는 볼을, 타자는 스트라이크를 각각 받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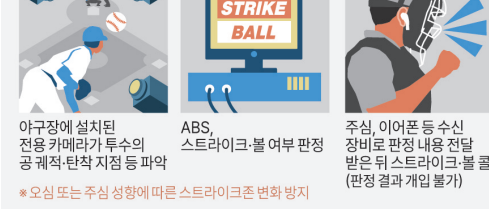
시범 19경기에서 피치 클록 위반 사례는 85건이 나왔으며 투수가 38차례, 타자가 46차례 어겼다. 포수의 위반 사례도 1건 있었다.

/연합뉴스

한국프로야구 새 제도 도입

2024시즌 도입(3월 14일 개막)

자동 볼 판정 시스템(ABS)



야구장에 설치된 전용 카메라가 투수의 공 궤적 추적 정확도 파악

ABS, 스트라이크-볼 여부 판별

주심, 이어폰 등 수신 장비로 판정 내용 전달 받음(위 스트라이크-볼 판정 결과 게임 볼가)

*오심 또는 주심 상항에 따른 스트라이크 변화 방지

수비 시범제

시범: 1루에 한 쪽을 비워두고 내야수를 12루 사이 또는 3루와 유격수 사이에 집중 배치하는 전술

수비팀은 포수-투수 제외 내야에 최소 4명의 야수를 뒤라리며 2루를 기준으로 양쪽에 2명씩 서 있어야 함(미국프로야구(MLB) 시행 중)

*내야수 수비 능력 강화, 더 공격적인 타격 유도

베이스 크기 확대

15인치 → 18인치

투수의 투구 시간 제한(주자 없을 경우 18초, 주자 있을 경우 23초 이내 투구)

*경기 시간 단축

자료: 한국야구위원회(KBO), 미국프로야구(MLB)

연합뉴스

김시우 “7년만에 우승 욕심난다”

PGA 플레이어스 챔피언십 15일 개막...상승세 안병훈도 출격

최근 아버지가 된 김시우가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제5의 메이저’ 플레이어스 챔피언십에서 7년만의 정상 탈환 욕심을 내비쳤다.

2017년 플레이어스 챔피언십에서 우승한 김시우는 지난달 아내 오지현이 아들을 출산해 아버지가 됐다.

플레이어스 챔피언십 개막을 이틀 앞둔 13일 PGA 투어와 인터뷰에서 김시우는 “별써 7년이나 됐구나 싶은 생각이다. 시간이 참 빠르게 흘러갔다”며 “그때는 아무것도 모르고 경기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다시 (우승) 욕심이 난다”고 말했다.

올해 들어 이렇다 할 성과가 없는 김시우는 “컷 통과가 모든 대회에 우선 목표다. 지금까지 7개 대회에서 컷 탈락이 없다. 꾸준하게 플레이하고 있다는 증거”라면서 “인내가 중요하다. 성적이나 우승에 너무 매몰돼 있다 보면 조바심이 나고, 또 이 조바심은 플레이에도 영향을 미친다. 지금까지 잘 기

다려왔으니 계속해서 기다리면 좋은 기회가 올 것”이라고 밝혔다.

우승했던 코스지만 코스에 대한 두려움은 여전했다.

“매년 바람이 분다. 바람이 돈다”면서 바람을 언급한 김시우는 “매년 TV에서 16~18년 홀에서 많은 선수가 실수하는 장면이 나온다. 그만큼 바람이 불면 어려운 홀이다. 조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버지가 된 소감을 묻자 김시우는 “처음 느껴보는 감정이다. 매우 신기하고 소중한 기분”이라면서 “목욕시키기는 너무 어렵고 기저귀는 많이 갈아줘 봐서 어려움은 없다. 첫날 밤은 조금 어려웠다. 아기가 왜 우는지 모르고 어떻게 달래줘야 할지 몰라서 어려웠는데, 간호사분들이 잘 알려줘서 도움을 받았다”고 말했다.

올해 들어 한국 선수 가운데 가장 뛰어난 활약을 펼치는 안병훈도 우승 욕심을 숨기지는 못했다.

그는 “메이저 대회 다음으로 제일 큰 대회이고,

세계 최고 선수들이 모이는 자리라서 (우승이) 더 탐난다”면서 “이 코스는 대회뿐 아니라 주니어 때도 많이 경험해 봤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골프가 쉽지 않고 뜻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마음을 비우고 치려고 한다. 이 코스가 워낙 어렵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안 될 때가 종종 있다. 그럴 때마다 마음을 비우고 매 샷을 집중해서 치다 보면 좋은 성적이 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지난번 욕심을 경계했다.

올해 경기력에 대해서도 만족감을 표시했다.

“꾸준하게 골프를 칠 수 있어서 만족스럽다”는 안병훈은 “기복이 심하지 않고 몇 주 동안 이렇게 꾸준하게 유지할 수 있는 것이 프로 들어오고 나서 거의 처음 느껴보는 거라 그 점이 제일 만족스럽다”고 밝혔다.

마스터스 출전권 확보가 당면 목표라는 안병훈은 “확률이 꽤 높은 것 같다. 아직 대회가 몇 개 더 남아서 현재로서 확정은 아니지만 이번 주에 좋은 성적 내서 확실하게 만들고 싶다”고 각오를 다졌다.

/연합뉴스

서울 방문 앞둔 LA 오타니 “먼저 인사드립니다”

SNS에 태극기 걸고 손 하트

이틀 후 서울에 도착하는 미국프로야구(MLB) 로스앤젤레스 다저스의 슈퍼스타 오타니 쇼헤이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먼저 한국 팬들에게 인사했다.

(사진) 다저스 유니폼을 입은 오타니는 13일(한국시간) SNS 계정에 환한 미소와 함께 손가락 하트로 포즈를 취한 사진을 게재했다.

사진 위에는 태극기도 함께 실어 오는 20~21일 서울 고척스카이돔에서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와 치르는 MLB 정규리그 개막전인 서울시리즈의 홍보 인사임을 한눈에 알 수 있다.

지난해 팔꿈치를 수술해 올해에는 마운드에 오르지 못하는 오타니는 지명 타자로 고척 스카이돔에서 장쾌한 홈런포에 도전한다.

오타니는 이달 초 스프링캠프 훈련 시작 전에 열린 미디어 행사에서 서울시리즈 출전을 공언했다.

10년간 7억달러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에 다저스와 계약한 오타니는 시범경기에서 타율 0.579(19타수 11안타), 홈런 2개, 타점 9개를 올리며



새 팀에 확실하게 정착했다.

샌디에이고 선수단과 오타니를 비롯한 다저스 선수단은 15일 차례로 한국에 도착해 16일 서울 고척스카이돔에서 시범 경기를 시작한다.

/연합뉴스